

후백제역사문화 복원·발전 협력 이어간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7개 시·군 단체장 참여 올해 첫 정기회의 전주서 가져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올해도 후백제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후백제역사문화권의 7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2일 후백제 왕도인 전주에 모여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2024년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는 후백제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전주시와 문경시, 삼주시, 논산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발족한 협의회는 올해 본격적인 3년 차를 맞게 됐으며, 협의회 규약에 따라 1기 회장단의 임무가 완료돼 이날 정기회의를 거쳐 새롭게 2기 회장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후백제의 왕도로서 그간 협의회를 이끌어온 전주시가 2기 회장도 시로 연임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온 '후백제역사문화자원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일 후백제 왕도 전주에서 2024년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합과 연계해 후백제역사기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7개 시·군의 단합을 위한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역문화탐방 등을 매년 개최해 회원도시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이번 회의를 통

지방정부협의회 의 거시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재선임된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 이후, 후백제와 견훤 대왕의 역사가 새롭게 인식되고 재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대전 환기이자 격동의 시대였던 후삼국시대와 후백제 역사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올바른 역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각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현재까지 9개의 역사문화권이 포함돼 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지난해 1월 법안 개정을 통해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포함됐으며,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북, 충남, 광주·전남, 경북지역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김옥기 기자

1등 공기기업 도약 위한 시민 보고회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혁신단 전체 회의 가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과 함께 1등 공기기업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공단은 지난 2일 월드컵경기장 세미나실에서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공단 임직원 등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묻고, 공단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시민참여혁신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경영방침과 1등 공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단은 이날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익을 향상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 △공단-전북현대모터스 FC 상생·협력 방안 △신규수탁 예정 시설 운영 방향 △근로자종합복지관 재개장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단은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공단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를 시민과 함께 1등 공기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정진하겠다는 게 공단의 목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10월 시민참여혁신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설정돼있는 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요 제도의 개선 방



사진은 전주시설공단 본부가 위치한 화산체육공원 전경.

안과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혁신분과'와 '정책분과', '예산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행정학과, 건축학과 교수들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언론인, 체육인,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혁신단을 통해 '시민의 놀이터'로 자리매김하는 게 공단의 목표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동네 놀이터처럼 시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하고, 재미있는 공간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 1등 공기기업 달성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이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청소종합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설 명절 만든다

전주시, 청소대책상황실·기동처리반 등 운영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

까지를 '설 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이 모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대청소는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연휴를 맞아 전주를 찾은 관광객,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활 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고숙·시외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방방곡곡이 많은 10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연휴 기간 가로청소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시는 연휴가 끝난 후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기간 적체된 생활폐기물을 일제 수거 처리할 방침이다.

조문성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설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전통시장서 설 명절 장보기 나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신중양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물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중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기동 의장과 김동현 운영위원장, 최용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원

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장은 "대형마트와 함께 온라인 판매 시장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 명절은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이기동 의장 등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신중양시장에서 명절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설 연휴 감염병 주의 당부... 비상방역체계 가동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보건소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여러 사람 간 음식 공동섭취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및 식중독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감염병 발생에 즉각적 대응하기로 했다.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음

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갈·도마 소독해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시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면회하거나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손을 수시로 깨끗이 씻고, 기침 시 마스크 착용하며, 음식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이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포화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